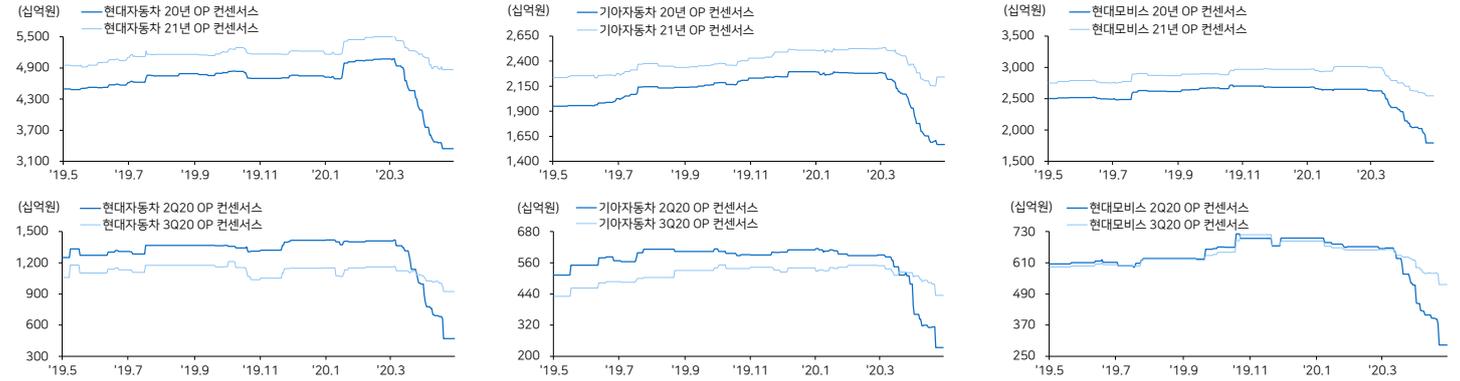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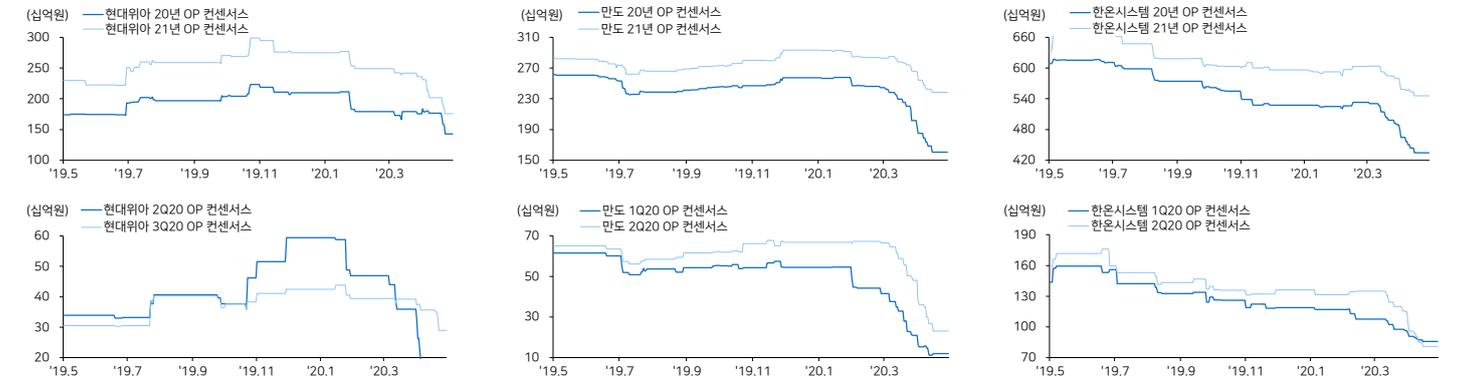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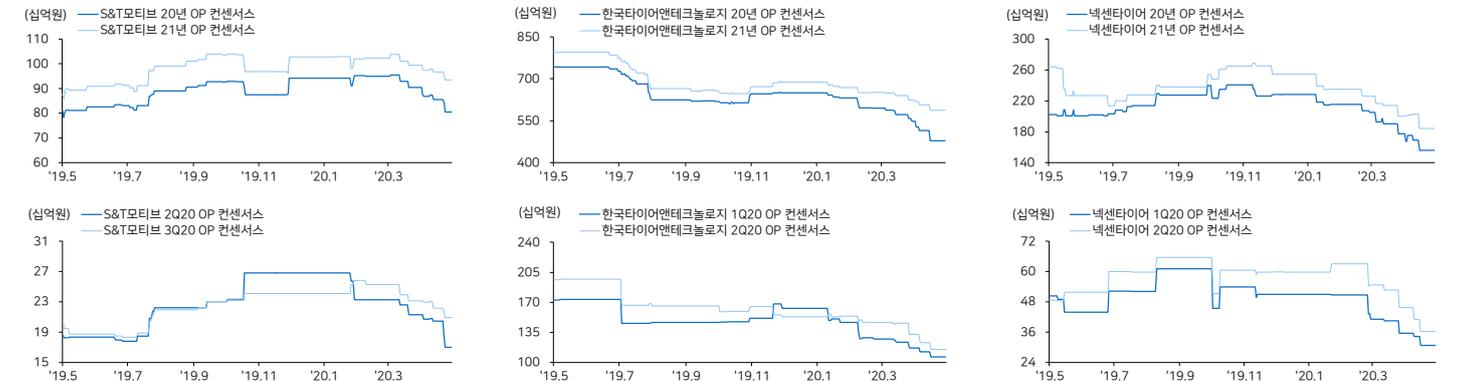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GV80 · G80 `무서운 질주`... 제네시스 내수 판매 첫 1만대 돌파 (디지털타임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론칭 5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 판매 1만대를 돌파. 올해 출시한 G80과 GV80이 선풍적 인기를 끈 덕으로 코로나19 악재에도 끄덕없는 모습을 보임.
<https://bit.ly/3ftBj5>

소리없이 강한 기아차 '니로'... 10만대 판매 눈 앞 (뉴데일리 경제)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SUV '니로'가 조용한 질주를 하고 있음. 이르면 다음 주 내수 판매 10만 대 고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해낸 데 이어 친환경 '간판 스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음.
<https://bit.ly/3do2h24>

4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 2년 만에 증가로 전환 (뉴시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7일 4월 자동차 판매량이 2년 만에 증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공식 위챗(微信) 계정을 통해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
<https://bit.ly/3ceIC4B>

중국공장 인도로 옮기세요... 1000여개 미국기업에 손해인 인도(한국경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의리기기, 식품가공, 섬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1000여곳에 중국공장을 인도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https://bit.ly/3beqeyQ>

기아차, 모하비 최상위 트림 '그레비티' 출시...5547만원부터 (조선비즈)

기아차가 플래그십 SUV '모하비 더 마스터'의 최상위 트림인 '그레비티'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 이날 기아차에 따르면 그레비티 모델은 기존 모하비 최상위 트림인 '마스터즈'를 바탕으로 실내·외 고급감을 높인 것이 특징.
<https://bit.ly/2LbZCwh>

제네시스, '제네시스 클라우드' 서비스 AWS 클라우드 통해 제공 (전자신문)

클라우드 고객 경험 및 컨택센터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제네시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서울 리전(Region)을 통해 제네시스 클라우드(Genesys Clou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https://bit.ly/2Wg2UoR>

한국타이어, 코로나19 여파에 1분기 영업이익 25% '핑크' (이데일리)

한국타이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등 타이어 수요 급감에 지난 1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입음. 한국타이어는 지난 1분기 매출액 1조4357억원과 영업이익 1058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발표.
<https://bit.ly/2A3JY3L>

테슬라, 중국 공장 자동차 생산 중단 (연합뉴스)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 공장 직원들은 5일간의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수요일에 일터에 복귀하게 돼 있었지만, 테슬라를 직원들에게 연휴를 적어도 토요일까지 연장한다고 알림.
<https://bit.ly/2WA140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